

## 시설노인의 입소경험\*

이 가 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양로시설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Elderly Welfare Law, 2000)되며, 전자 2종의 시설을 통상적으로 노인복지 입소시설이라 한다(Lee, 1999).

노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수발자의 부담이 매우 높기에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폭될 것이며,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이른바 노인보호시설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Jo, 1998;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1998)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 41.6% 중 27.4%가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1)의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 우리나라 무료, 실비 및 유료노인입소시설의 수가 123개로 입소자수가 2,522명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시설 수는 250개, 입소자수는 5,012명으로, 약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

의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호인력들이 노인시설이라는 간호현장에서 새로이 입소하게 되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그들의 평생 삶의 근거지인 고향과 가족, 이웃 등 친밀하고도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 노인들만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 등의 낯선 입소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Seo와 Rhee(1996)는 노인의 주거이동은 친숙한 생활의 근거지를 파괴하며, 사회적 관계와 감정적인 애착을 단절시키며,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기에 경우에 따라 사망률의 증가, 건강악화, 의기소침, 우울 등의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Lee(1997)는 우리나라 노인들에게서 시설 입소는 오랫동안 부양관계를 유지해오던 자녀로부터 그리고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인 가구로부터 이탈하는 일종의 반사회규범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입소로 인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입소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시설거주 노인들에 대한 살아있는 입소경험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서구의 경우에는 입소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Barbara(1995), Lander, Brazil, Ladrignon(1997),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신진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Manion & Rantz(1985) 및 Vogel & Mercier (1991)의 연구와 주간호자의 입소의사결정과정과 입소 후 경험을 다룬 Fink & Picot(1995)의 연구 등 다수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요양원 등 간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간호학 분야에서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양적연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적연구를 한 경우는 시설노인의 삶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Lee(2000)의 연구와, 여성 시설거주노인의 독립성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을 한 Lee(2002)의 연구 단 두 편만 확인되었을 뿐 만 아니라, 시설노인의 입소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시설노인간호 현장에서, 시설노인의 입소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시설 거주 노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시설에 새로이 입소하는 노인들의 위기관호 중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 거주노인들의 입소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확인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 입소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입소와 관련된 살아있는 경험을 확인하여 그 경험의 본질을 기술함으로써, 시설노인에 대한 간호중재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설노인의 입소 경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 2. 연구시설 및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시설은 D시와 B시 2지역에 있는 노인복지 입소시설로서 D시의 노인시설은 양로원, 요양원 및 실비요양원의 3개의 시설이 한 영역 내에 있

어, 각 시설 거주자들은 일상생활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반면 B시의 시설은 양로원 1시설로만 되어있는 곳이다. D시의 시설은 본 연구자가 학생 실습지도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던 곳으로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설 장에게 연구 목적과 자료수집방법 등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뒤, 노인들을 개별접촉 할 수 있었으며, B시의 시설은 평소에 연구자가 알지 못하던 시설이었으나, 시설 장을 만나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방법 등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참여자는 연구자가 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노인들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노인이나 간호사와 시설직원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연구에 참여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추천한 자 중에서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없으면서, 면담이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 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중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수는 시설입소경험에 대한 자료가 포화될 상태까지의 인원수인 11명으로 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5명, 여자 6명이었다. 또한 시설형태별로는 양로원 거주자 5명, 노인요양원 거주자 1명, 실비노인요양원 거주자 5명이었다.

### 3.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보호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전에 개별적으로 노인들을 만나 연구 목적과 자료수집방법,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여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과정 중 언제라도 연구참여 거부가능하다는 것,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참여자의 신상에 대해 전혀 노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진행과정 동안 참여자와 함께 하면서 건강상담이나, 병원 방문시 동반을 하거나 물리적인 후원을 하는 등 개별 참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1999년 6월부터 2001년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시설노인의 입소경험에 대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수집

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참여자와의 친근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면담장소는 모두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곳인 그들의 거주하는 방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식사나 프로그램, 외출시간 등을 피하여 미리 약속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면담시의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고, 가능한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입소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날씨나 건강상태 등의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가 진술하는 중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였으며, 참여자가 침묵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다음 진술을 기다렸다. 면담시 연구자가 품은 주된 물음으로는 '시설거주노인들에게 시설 입소라는 경험은 무슨 의미인가?' 였다.

자료 내용 중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다음 면담시에 확인하였으며, 면담 중 참여자의 표정, 옷차림과 주변환경이나 시설내의 분위기 같은 것은 조사노트에 메모하였다가 자료 분석 시에 활용하였다. 면담한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소형녹음기에 녹음하였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하여 들으면서 가능한 한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컴퓨터에 입력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해나갔다.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끊임없이 반추하였으며, 자료수집이 끝날 때까지 문헌고찰을 삼가하였다.

각 참여자별로 평균 3회 정도 면담하였으며, 면담 간격은 약 1주일 정도이며, 1회 면담 시간은 약 5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자료분석과정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가 진술한 녹음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그들

의 말 그대로를 기술하였다.

- 2)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조사노트를 참고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반복하여 읽는 중에, 시설노인의 입소 경험과 관련이 있는 문장이나 구(significant statements)를 추출하였다.
- 3)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s)하여 연구자의 창조적인 언어로 의미를 구성(formulating meanings)하였다. 이때 참여자가 진술한 원자료에서의 의미와 분리되지 않도록 순환적으로 자료를 되새겼다.
- 4)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themes)를 모은 뒤 다시 주제 모음(theme clusters)으로 조직하였다. 이때도 원자료와 분리되지 않도록 원래의 기술과 반복하여 대조하면서, 질적연구 경험자인 간호학 교수 2인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5) 각 주제와 주제모음을 관심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완전하게 기술하였다.
- 6) 각각의 완전한 기술에서 확인된 현상의 공통요소를 통합하고 종합하여 시설노인의 입소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 진술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서는 면담 과정동안에 연구현상에 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자와의 깊은 신뢰관계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료 분석시에는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과 일치를 보도록 하였고, 또한 분석결과를 참여자에게 되돌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Ⅲ. 연구 결과

### 1. 주제모음

시설노인의 입소 경험과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은 모두 275개였으며, 이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여 178개로 나타냈다. 이때 같은 의미를 지닌 비슷한 표현은 하나로 나타냈으며, 같은 의미이나 다르게 표현한 것은 참여자의 지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 참여자의 원래의 의미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연구자가 창조적인 언어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의미는 다시 28개의 주제와 8개의 주제모음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는 '자식에 대한 원망', '불가항력적

〈표 1〉 시설노인의 입소경험

주 제	주제모음
고생을 알아주지 못함, 자식에 대한 배신감, 자식의 일방적 권유	자식에 대한 원망
경제적 기반부재, 생활의 어려움, 혼자서 지낼 수 없음, 막다른 선택	불가항력적 입소
형편없이 여김, 끝까지 버텨,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들어옴, 남보기 부끄러움	남의 이목으로 인한 수치심
울면서 떠나옴, 죽고싶음, 아무 것도 하기 싫음.	충격을 견디기 어려움
낮선 곳에서의 허전함, 끝없는 울음, 마음잡지 못함, 텃세로 인한 서러움, 돌아가고 싶음	낯설음으로 인한 비애
피붙이를 기다림, 집 생각으로 인한 고통, 떨칠 수 없는 번민, 잠들지 못함	바깥세상을 잊을 수 없음
죄의 대가로 여김, 한탄스러운 인생, 밥벌레 같은 존재	자신에 대한 회한
마지막 정착지에 대한 안도감, 일상생활지지에 대한 편함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편안함

입소', '남의 이목으로 인한 수치심', '충격을 견디기 어려움', '낯설음으로 인한 비애', '바깥세상을 잊을 수 없음', '자신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편안함'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시설노인의 입소경험에서 도출된 주제를 현상과 관련시켜 완전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모음 1. 자식에 대한 원망〉에는 〈고생을 알아주지 못함〉, 〈자식에 대한 배신감〉과 〈자식의 일방적 권유〉가 해당되며 그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생을 알아주지 못함〉 “격흔하사라자 남편과 이별하고 딸이지. 내가 스물 다섯에 혼자되고”, “며느리 하고 같이 살았다면 오지 못했겠지만 혼자서 꾸욱 있었으니까”, “혼자 살아있음. 아들들은 각각 다... 내 보내고, 내 혼자 집에 있다가”,

〈자식에 대한 배신감〉 “며느리한테 있어보니, 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는 같이 못 있겠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간다케야, 아이들이 반가워하지도 안 할게고”, “지금 큰 아들하고 딸 안 한지도 꽤 오래 됐어요”, “자식 키워 놓으면 더 용이나 뺏아 이깃디만..., 키워도 아무 소양이 없어. 쓰잘 때 없는 거..”, “다 펴고 없고..., 아들도 딸도 펴고 없고..., 지 연장.. 지 연장 지가 해야되는 거지.”

〈자식의 일방적 권유〉 “내가 장기간 이처고 있으니, 며느리가... 어머니 양로원에 가실겁니까? 이래 물어, 그대 내가 양로원이 뭔데”, “작은 딸이 그러더라. 아버지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더할것여. 거어 가서 편안하기 위해서 거기

보낸다구...”

참여자들은 배우자 없이 혼자서 어려운 가정살림을 꾸리면서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면서, 노후가 되면 그들에게 보상을 받을 희망으로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봉양을 받지도 못하며, 구박을 당하기까지 하는 홀대를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철저하게 아들을 신봉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평생을 살았던 노인들에게는 아들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경험하게 하며, 또한 중국에는 시설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자식에 대한 강한 원망을 지니게 된다.

〈주제모음 2. 불가항력적 입소〉에는 〈경제적 기반부재〉, 〈생활의 어려움〉, 〈혼자서 지낼 수 없음〉과 〈막다른 선택〉으로 조직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기반부재〉 “참 인사는 그대도 직장에 댕기다 노후대책으로 며 참 연금이라도 넣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기 없거든, 참 노후 대책이 뭐가 있고 하마, 걱정 할꺼 없는데”, “조금이라도 뚝뚝했으면..., 돈도 쏠 뵈고 이랬을진데, 첫째 굶음 모르고 하니”

〈생활의 어려움〉 “내가 한달에 이십만원 나오는 것가지고 살기가 살지않은 내내 병원에 다니고 하니가 돈이 턱도 없더라고”, “경비 문제도 생각해야 되니 집에 있으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가”

〈혼자서 지낼 수 없음〉 “허리를 다쳐서 수숙을 해도 견디를 못해요. 내내 혼자 집에 있다가 도저히 혼자 지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안터어서 여기 왔어요”, “몹이 아프니까 제일 힘들테라고, 내가 혼자 죽어도 모르겠구

나 죽어도 낚이 알 수가 없겠고, 한 집에 있는 사람도 모르겠더냐고”

〈딱다른 선택〉 “사는 낚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런 데나도 가보자”, “겨국은 안터어서, 안터겡고 해서...”

참여자들은 입소이전 한 평생동안, 뚜렷한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지만,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며, 영세민인 경우에는 정부의 소액 지원으로 이 모두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허리를 다치는 등,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건강문제가 발생하여, 가족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지니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막다른 선택으로서 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

〈주제모음 3. 남의 이목으로 인한 수치심〉에는 〈형편없이 여깁〉, 〈끝까지 버텨〉,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들어움〉, 〈남보기 부끄러움〉으로 조직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편없이 여깁〉 “전에는 양로원 같으나, 어디 쳐 주나, 다 머 거한 사냥들이 가는거지...”, “옛날에는 이런 데 오는 거 아주 큰 흥으로 생각하는데...”

〈끝까지 버텨〉 “내가 안들어올려고 몇 년을 버텨왔어”, “고마 같까 맏까 좀 더 있다가 나이가 좀 더 많거든 같까, 그대 마아 자제를 했는기라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들어움〉 “그대 인자 아무도 없는데, 이사이사 거어가지고 내 못하고 이불하고,, 그러 이 가만히 온 택이지, 가만히...”, “침원에 오면서로 가움에 갔다, 가움에 갔다카며 거짓말을 했거든에, 그대 내 혼자터러 집을 살살 사고에, 아무도 모르게 샀거든에, 밖으로”

〈남보기 부끄러움〉 “나는 안간다... 못간다 이겠지. 아이고 자식들도 있는데 우사시키고”, “처음에 오이 못 살겠데에, 지나가는데 또 낚사시럽고, 이러이 딱 나가기도 싫고”, “나가기 싫어... 전화도 하기 싫고... 나가기 싫어”, “익적 시내 안 나갔어. 한 삼년 안 나갔다고, 그러이 머 누가 나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자들은 평소에 노인시설에 대하여 가난하며 자식들이 불효를 하는 노인들만 가는 곳으로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아들이 있으면서도 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신의 체면뿐 만 아니라, 아들의 체면에도 손상이 되는 행위라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집단 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최대한 입소를 미룰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입소시기가 다가오자 입소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몰래 짐을 사는 등 아무도 모르게 입소에 대한 준비를 하며, 입소 이후에도 친인척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하거나 외출을 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남의 이목으로 인한 강한 수치심을 경험한다.

〈주제모음 4. 충격을 견디기 어려움〉에서는 〈울면서 떠나움〉, 〈죽고싶음〉과 〈아무것도 하기 싫음〉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면서 떠나움〉 “들어오는 인시에 한 삼사일은 잠도 옴게 못 자고, 들어오기 전 낚 뱃새도록 꼬박 밤을 새고 숙을 먹고 웅다가”, “떠나다 딱지막이다 생각하니, 사냥이 살다가 이래 되겠나 싶은 것이, 역수로 마음이 수수했는데”, “딱상 서류측 해 놓고 보니 쓸쓸한 기, 마음이 그대 안됐대에”

〈죽고싶음〉 “처음에, 이러 와서 너무 못 견뎌서, 내가 수면제, 정신안정제, 그놈을 내가 이따치 사냈지. 머 안되마 죽으라고”, “처음에는 숙도 많이 먹었지, 잠 안오면 숙 먹고, 먹고”

〈아무것도 하기 싫음〉 “친구 사귀어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좋다 하는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이 싫고”

참여자들은 입소를 앞두고, 폭음을 하거나 불면, 울음 등의 표현으로 보아, 심리적 상태가 매우 우울하고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심정은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여 입소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제모음 5. 낚설음으로 인한 비애〉에서는 〈낚선 곳에서의 허전함〉, 〈끝없는 울음〉, 〈마음 잡지 못함〉, 〈텃세로 인한 서러움〉과 〈돌아가고 싶음〉으로 조직되었다.

〈낚선 곳에서의 허전함〉 “너무 쓸쓸하고 아는 사냥도

없고예, 너무 쓸쓸하고 이래서”, “허전한 것은 말 할 수 없지요”

〈끝없는 울음〉 “한 오일 동안은... 울기도 많이 울었어예... 처음에 들어타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자꾸 눈물 흘리고... 아이구 눈물도 많이 흘렸어예”, “처음에 와서... 전부 낫설고 해서 내내 울었습니다”

〈마음 잡지 못함〉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샅던 곳에 가서 있다”, “처음에 와서 몇 달 동안은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내 밖에 가서 살다시피...”, “처음에는 마음을 죽 수가 없어”

〈첫세로 인한 서러움〉 “처음에 와서는 같이 있는 사람 등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참 먼저 왔다고 군대처럼 텃세를 많이 하더래구요. 나가지 마라 하면 나가지 말고, 집 지켜라 하면 지키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참 힘드더래구요.”, “첫날 들어오니까, 일 주일 먼저 온 한 방에 사는 학매가 언제나 병난지예, 말도 못하는기러예”

〈돌아가고 싶음〉 “처음에는... 못 있겠더래꼬... 참 내가 후회하 하고 내가 좀 더 있다가 왔으면 되던데, 마 이런데 안 있다가 있으니까 후회가 되더래꼬”, “내가 도저히 못 있겠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방 하나 구해동래꼬, 내가 다시 나갈래꼬”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익숙했던 생활의 근거지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떠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낯선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것과 또한 자신보다 먼저 입소한 노인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것으로 인해 강한 슬픔과 설움을 경험 한다. 이러한 경험은 시설에서 적응하여 살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입소를 후회하게 하며, 시설을 떠나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주제모음 6. 바깥세상을 잊을 수 없음〉 〈피붙이를 기다림〉, 〈집 생각으로 인한 고통〉, 〈떨칠 수 없는 번민〉과 〈잠들지 못함〉으로 조직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붙이를 기다림〉 “다른 사장은 보호자들이 오고 와서 등다보고 그러는데, 나는... 며느리 손자놈은 어디가서, 한 번 오지도 안하고... 싫은기”, “머 찾아오기씩 하까, 전화를 한 통 하까, 오늘도 전화 안온다 하며, 딱 래씬하고 이력쑤가 있나 싶으고”

〈집 생각으로 인한 고통〉 “만날 고향 생각, 아아들 생각, 아아들 생각, 그러다가 그 생각 때문에 사지가 이렇

게 고통스러버요”, “여기 올 때 (키우던 개) 못 데리고 와서예. 여 와서 있어도 내내 그리 생각나는기러예, 빨리 가서 한번 타야 되겠다 싶으고, 꿈에도 보기는기러예”

〈떨칠 수 없는 번민〉 “누워서 가깝히 있으면... 자꾸 자꾸 생각이 나는기러, 잊어버렸나 해도 또 떠오르고 오르고, 그러니 죽겠는기러. 처음에는 죽겠는기러. 또 생각이 나고 나고...”, “밖에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 버리지도 안 생각지도 못하겠고”

〈잠들지 못함〉 “평소에도 잠자리만 바르든 잠이 잘 안 왔는데, 잠 안 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 머”, “복도에... 앉았다가, 또 잠이 안 와서 눕었다가, 밤 새도록... 한 다섯시나 되서 한번 잠을 샅꾼 자고...”

입소 이후에 자식들의 전화나 방문 등, 가족들로부터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자식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식에 대한 분노나 그리움이 극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살던 곳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끝없는 번민과 함께 뒤어져 심각한 불만을 경험하게 한다.

〈주제모음 7. 자신에 대한 회한〉 〈죄의 대가로 여김〉, 〈한탄스러운 인생〉과 〈밤벌레 같은 존재〉로 조직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죄의 대가로 여김〉 “이 늙은이는 어디서 잘못됐는고, 이 늙은이는 어디서 잘못됐는고...”, “내 지한테 잘못해가 내 처 받는다 이런 생각이 먼저 싹 들어오더래꼬...”

〈한탄스러운 인생〉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싶은 것이, 처음에는 죽을 것 같대요”, “들어올 때... 한신하지... 여태까지 살고 이래밖에 안 되나, 여태까지 살고, 이래 밖에 안되나 싶은기”, “내가 살다가 마지막 여생을 이래 따치는 구나 싶은 것이”

〈밤벌레 같은 존재〉 “한전히 태지새끼처럼 먹고 잠만 자는 거, 이게 낄승이지 사냥 사는 거나 하는 희의가 느껴지더래구요”, “이거 머 사는 거라고, 밤벌레지, 밤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벅거지 중에는 인 벅거지다, 주마 먹고 자는 시간 되면 자고, 안주마 안 먹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시설 입소를 이전에 잘 살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죄의 대가로 여긴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한탄과 현재 자신을 인간 존재 이하로 비하시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나타낸다.

〈주제모음 8.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편안함〉〈마지막 정착지에 대한 안도감〉과 〈일상생활지지에 대한 편함〉으로 조직되었다.

〈마지막 정착지에 대한 안도감〉 “그마 내가 안 굶어죽는구나 싶고, 그마 마 편안해유. 마음이 그때는 다아 버리고 그때는 인제 마 이미 끝났거든에, 걱정됐거든에, 그마 편안한거라에, 마음이 마 편안하이”, “내가 여생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에, 너무 좋더라고에, 마음이 후련한 것이”

〈일상생활지지에 대한 편함〉 “하루밖 지나가 괜찮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편해유. 하루 삼시 세끼밖 다 해주지, 빨래, 다 해주지... 따뜻한 방에 지나가 너무 좋더라고에”

참여자들은 시설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정착지라고 여겨, 입소 이후 정착에 대한 안도감을 경험하며, 입소 전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였기에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지지에 대하여 만족을 경험한다.

## 2. 본질적 구조적 진술

이상과 같이 완전한 기술에서 확인된 현상의 공통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시설노인의 입소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적 진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배우자 없이 혼자서 어렵게 자식을 키워 노후에 그들로부터 편안하게 봉양을 받으면서 살 생각이었으나, 나이 들어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이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부양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집단시설로까지 들어와야만 하는 홀대를 경험하게 되자 자식에 대한 강한 원망을 지니게 된다. 또한 시설 밖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한평생 뚜렷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 더러,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건강문제까지 발생하자,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막다른 선택지로서 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평소에 노인시설에 대하여 비하감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자신이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워, 최대한 입소를 미루었으며,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도 자신의 입소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입소이후에도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목에 대한

강한 수치심을 경험한다. 입소를 전후하여 심리적 상태가 매우 우울하고 불안정하여,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심지어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는 충격을 경험한다. 또한 익숙했던 생활 근거지를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는 것은 강한 슬픔과 서러움을 유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시설을 떠나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지니게 한다. 자식에 대한 강한 원망이 있으나 그들로부터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분노나 그리움이 더욱 강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시설 밖에서의 삶에 대한 번민과 엮여져, 심각한 불면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며, 시설입소를 자신의 죄 대가로 여기며, 자신을 인간존재 이하로 비하시키게 된다. 그러나 시설이 그들의 삶에서 마지막 정착지라고 여겨 안도감이나 일상생활지지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입소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의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가 발생하여 가족 등 주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더 이상 혼자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없기에, 막다른 선택으로서 시설입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ung(2000)의 연구에서 입소관련요인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또는 가계의 경제적 문제라고 제시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시설입소와 관련된 요인으로 건강문제 뿐 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가 항상 포함되고 있으나, 이는 연구의 대상이 현재 우리나라에 노인입소 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료와 실비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최근 우리 나라에도 유료노인시설이 증가되고 있기에 이곳의 거주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반복해 보아 입소 관련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은 유교의 전통적 사상으로 인하여 자식 중, 특히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한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 당한다고 여겨, 입소 이후에 외출을 삼가는 등, 강한 수치심을 지니게 된다. 이는 Ko(1999)의 경기도내 생활보호대상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수용시설 입소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9%가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하기 싫

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어 생활유지가 곤란한 대부분의 영세노인들도 시설입소에 대한 높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WRIKS(1999)에서 나타난 노인들이 양로원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남들의 이목'을 제시한 결과와 상통한다고 본다. 가족중심주의가 지배적이며 혈연을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분리되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을 지닌 채, 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은 노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식이 있으면서도 부양을 받지 못한 채, 입소하는 경우에 타인의 이목으로 인한 수치심이 의식 저변을 지배하고 있어 시설에서의 질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노인의 이러한 특수한 정서를 고려하여 노인 혼자서도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거주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나 방침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으면서, 시설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시설노인들은 입소를 전후로 하여 입소에 대한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연구(Brooke, 1989; Osgood, 1992; Barbara, 1995; Lee, 2000)에서 노인들이 시설 입소 후 얼마동안은 불안, 혼돈, 불면, 식욕저하, 우울, 외로움, 무기력, 눈물흘림이나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시도나 자살과 같은 부적응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Lander, Brazil과 Ladrigon(1997)의 연구결과에서 시설로의 거주지 이전은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특히 입소 후 1달 동안에 기분 및 정신적 장애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나타내었고, Lee(1996)는 이동 전의 가족 및 친척, 친구, 지역사회조직과의 친숙도가 높았던 노인들은 입소 후 처음 3개월간 극도의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였다. Thomas(1979)는 장기요양시설로의 입원 이후 첫 4주 동안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혼돈을 제시했으며 그 외 불면, 식욕저하, 우울, 낙담, 피로, 무기력, 눈물흘림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Brooke(1989)는 입소 후 첫 6~8주 동안을 "혼란"기간이라 했으며 이 시기에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거주지이전에 대한 느낌, 예민함, 포기, 불면이나 위축, 불안, 염려, 식사와 수면습관의 변화, 의존성, 상실, 피로, 안절부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시설입소로 인한 심각한 심리

적 영향이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Mikhail(1992)의 연구에서 입소기간, 입소에 대한 준비, 노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치, 시설환경, 입소 전 생활환경, 입소시의 건강상태 및 입소동기의 자발성 정도 등은 노인들의 입소이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시설 입소는 일종의 반 사회규범적 이탈행위의 의미가 있다(Lee, 1997)고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입소이후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참여자들은 시설에 들어와 서로 다른 동년배 노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먼저 입소한 노인들의 텃세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를 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Song과 Hah(1995)의 노인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며, 또한 감소된 개인공간은 상호간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한 것과 비슷한 문제를 제시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 공간에서 노인들이 서로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돕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관계훈련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새로 입소한 노인들이 시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먼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여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자들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계속하여 자식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오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 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Kim, Kim, Kim, Lee와 Kim, 1999; Kim, C. T., 1999; Park, 1998)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건강,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도와 자녀간의 접촉 및 상호작용 등과 경제적 능력이라는 보고를 통해 볼 때, 시설거주노인들이 자식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지대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설노인의 입소와 관련된 연구 뿐 아니라, 시설에 부모를 둔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시설노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사정과 이해를 통한 간호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거주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질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입소노인의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을 떠나 시



설로 들어가는 것이 혈연들과의 분리로 여기는 우리나라 노인의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은 시설거주노인들에 대한 간호중재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참여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자책,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과 허무감과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비하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노인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료 및 실비시설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나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보다 그들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이 더 크기에 자존감이 쉽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Coleman, 1984) 시설거주노인들의 자존감과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절실하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설노인의 입소 경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접근을 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모두 11명이며 시설 형태별로는 양로원 거주자 5명, 요양원 거주자 1명과 실비요양원 거주자 5명이었다.

자료수집은 1999년 6월부터 2001년 9월까지였으며, 자료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분석과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시설노인의 입소경험과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은 모두 275개였으며, 이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한 것은 178개로 나타났다. 또한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한 것으로부터 연구자가 참여자의 원래의 진술과 분리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의미를 구성하여 28개의 주제와 8개의 주제모음인 '자식에 대한 원망', '불가항력적 입소', '남의 이목으로 인한 수치심', '충격을 견디기 어려움', '낯설음으로 인한 비애', '바깥 세상을 잊을 수 없음', '자신에 대한 회한' 과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편안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무료 및 실비노인시설 외에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증가하고 있는 유료노인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

으로 입소경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시설노인의 입소와 관련된 그들 가족의 경험을 파악하여 시설거주노인들에 대한 총체적 간호접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3. 시설입소와 관련된 노인의 심리적 영향 및 그 관련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입소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전략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 References

- Barbara, K. H. (1995). Suicide Risk in Frail Elderly People Relocated to Nursing Homes, *Geriatr Nurs*, 16, 104-107.
- Brooke, V. (1989). how elders adjust, *Geriatric Nursing*, 8, 66-68.
- Chenitz, W. C. (1983). Entry into a nursing home as status passage : a theory to guide nursing practice, *Geriatric Nursing*, 4, 92-97.
- Choung, K. H. (2000). The resident's life and service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Facility. *Health and Welfare Forum*, 3, 40-52.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P. G. (1984). Assessing self-esteem and its sources in elderly people, *Aging and Society*, 4(2), 117-135.
- Fink, S. V., Picot, S. F. (1995). Nursing Home Placement Decisions and Post-Placement Experiences of African-American and European-American Caregivers, *J of Gerontological Nursing*, 21(12), 35-42.
- Jo, A. J. (1998).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elderly household and Welfare plan. *Forum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4, 62-71.
- Kim, C. T., Park, J. W. (1999). The Factors

- Affecting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in Taegu, Korea,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1), 61-81.
- Kim, T. H., Kim, D. B., Kim, M. H., Lee, Y. J., Kim, A. S. (1999).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Quality Life for the Aged(II).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1), 61-81.
- Ko, Y. G. (1999). Survey of the poor elderly and policy subject, *Research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99-01, 7-62.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8). *A survey on the Life of the elderly and Welfare need in Korea*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6). *A Study for the elderly care service development*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ander, S. M., Brazil, A. L., Ladrigon, P. M. (1997). Intrainstitutional Relocation : Effects on Resident's Behavior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J. of Gerontological Nursing*, 23(4), 35-41.
- Lee, G. E. (2000). *Life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Doctoral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e, H. W. (1999). *Elderly Welfare theory and practice*, Yoo Poong Publish Co.
- Lee, I. S. (1997).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Nursing Facility for the Aged.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3(1), 101-120.
- Lee, I. S. (199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Facility(2),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6(2), 102-119.
- Lee, M. H. (2002). *Independence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women : ethnomethodological approach*,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Manion, P. S., Rantz, M. J. (1995). Relocation stress syndrome : A comprehensive plan for long-term care admissions, *Geriatric Nursing*, 16(3), 108-112.
- Mikhail, M. L. (1992). Psychological Responses to Relocation to a Nursing Home, *J of Gerontological Nursing*, 18(3), 35-3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Yearbook of Health & Welfare*.
- Osgood, N. J. (1992). Environmental factors in suicid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Suicide Life Threat Behav*, 22, 98-106.
- Park, C. S. (1998). An Analysis on the Time-us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8(2), 30-46.
- Seo, S. H., Rhee, K. H. (1996). The Effect of Residential Relocation for the Life of the Elderly,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6(1), 69-82.
- Song, M. S., Hah, Y. S. (1995). *Gerontological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Thomas, E. G.(1979). Morbidity patterns among recently relocated elderly. I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Divisions on Practice*, ed. ANA, 154-165.
- Vogel, C. H., Mercier, J. (1991).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n Nursing Home Populations. *J Gerontological Nursing*, 17(3), 30-34.
- Women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ety(1999). *The old and Korean Society*, Seoul: Institute of Society and Culture.

- Abstract -

##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by the Elderly\*

Lee, Ga Eon\*\*

**Purpose:** The number of nursing home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1.

\*\* Nursing Department,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resident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Nurses need to know the lived experience of relocation of the elderly to long-term care facilities. However, studies on this issue has not yet been conducted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lderly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Method:** There were 11 participants who consisted of 5 men and 6 women living in 3 different nursing home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from June 1999 to October 2001, and analyzed by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Result:** A total of 275 meaningful statement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by the elderly were obtained. Of the 275 statements, 175 were found as the statements

with more general forms. 28 themes were grouped into 8 theme clusters. These theme clusters included 'resentment at their sons', 'irresistible admission', 'humiliation on institutionalization', 'being unbearable to shock', 'grief to unfamiliarity', 'being in agony of outwards', 'regret for self- life' and 'comfort for new residence'.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understand the lived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 elderly. We need to develop a nursing program to help the elderly cope with this crisis, and studies about the familys experience on their parents admission to institutionalized facility warrant further exploration.

**Key words :** Nursing home resident,  
Intrainstitutional relocation,  
Experience, Phenomenology